시중은행 긴장시킨 '메기 효과' 절반의 성공

시중은행 금리 낮추고 디지털뱅킹 붐 차별성 사라지자 미꾸라지 전락 우려 지난해 당기순손실 경영건전성 문제 최근 은산분리 완화 움직임에 새 희망

지난해 4월과 7월 각각 문을 연 국내 인 터넷전문은행 1,2호 케이뱅크와 키카오 뱅크가 출범 1주년을 맞았다. 두 은행의 1년간 행보를 바라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모바일 기반의 간편 플랫폼을 통해 금융 권 혁신을 주도했다는 호평이 있는 반면, 적지않은 당기순손실을 바라보며 경영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시중은행 긴장시킨 '메기 효과'

인터넷전문은행은 첫 등장부터 돌풍 을 일으켰다. 케이뱅크는 출범 100일 만 에 가입자 수 40만명과 수신(예·적금액) 6100억원, 여신(대출) 6500억원을 달성 하며 연간 목표치를 돌파했다. 두 번째 로 등장한 카카오뱅크는 파급력이 더 컸 다. 같은 기간 가입자 400만명과 수신액 4조200억원, 여신액 3조3900억원을 기 록했다. 이후 1년 간 가파른 속도로 성장 했다. 케이뱅크는 3월말 기준 가입자 71만 명과 수신 1조2900억원, 여신 1조 300억원을 올렸다. 카카오뱅크는 22일 기준 가입자 633만 명, 수신 8조6300억 원, 여신 7조원을 달성했다.

은행들은 긴장한 모습을 보였다. 각 시 중은행이 모바일 플랫폼에 집중하면서 금용가에 디지털뱅킹 붐이 일었다. 인터 넷전문은행이 예금금리는 높게 대출금 리는 낮게 제공하자 시중은행들도 재빨 리 금리를 조정했다. 수족관에 메기를





케이뱅크의 주거래 우대 자유적금(왼쪽)과 카카오뱅크가 출범 1주년을 기념해 선보인 한정판 체크카드. 출범 1주년을 맞은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1,2호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메기 효과를 이어갈지 미꾸라지로 전락할 지 기로에 서 있다.

풀어 놓으면 다른 물고기들이 이를 피하 행 지분을 최대 10%, 의결권이 있는 지 려고 더 빨리 움직이는 것처럼 강력한

● "미꾸라지로 전락" 비판도 있다

로 격차는 점점 사라져갔다. 특히 시중 은행과 대출금리 차이가 없어져 금융 소 국 증자 불발로 인한 자본 부족은 사업 확 외 계층을 지원한다는 본래의 도입 취지 가 사라지면서 기존 은행과 다를 바 없 인터넷전문은행의 초반 약진에 시중 는 미꾸라지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비판 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 무엇보다 출범 초기부터 우려가 나왔 던 '은산분리' 규제가 큰 난제다. 산업자 본의 은행 소유를 제한하는 은산분리 장 벽에 가로막혀 자본 확충에 제동이 걸려 있다. '은산분리' 규제는 산업자본이 은

분은 4%만 보유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경쟁자의 등장으로 전체가 더 높은 잠재 다. 지분비율에 맞춰 증자를 진행하는 력을 발휘하는 '메기 효과'가 가시화 된 만큼 주주 간 협의가 뒷받침돼야 한다.

실제로 케이뱅크의 경우 20여 개로 나 눠진 지분 구성 탓에 증자에 애를 먹고 있 다. 12일 총 1500억원 규모로 유상증자를 하지만 시중은행들의 발 빠른 대응으 진행했지만 보통주 지분율에 영향을 주 지 않는 전환주 300억원만 납입됐다. 결 장에 어려움을 낳았고, 이는 다시 실적 악 화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 837억원, 104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낸 것 도 이와 무관치 않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교두보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은산분리 완화 움직임, 장밋빛 미래 펼** 상품 등을 출시할 예정이다.

그나마 최근 다행인 것은 은산분리 완 화 특례법 제정이 급물살을 타는 등 숨통 을 틔어질 기미가 보인다는 점이다. 최종 구 금융위원장은 23일 경기도 판교 카카 오뱅크 사옥에서 열린 핀테크 생태계 활성 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과 핀테크를 활성화하려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며 사실 상 인터넷전문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이 후 국회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통 과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분위기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맞춰 카카오뱅크 케이뱅크와 키카오뱅크가 지난해 각각 는 앞으로 1년 간 누적된 고객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중·저신용자의 금융 부 담을 낮출 수 있는 대출 상품을 확대할 방침이다. 케이뱅크도 비대면 아파트 담보대출, 앱 기반 간편결제, 기업 수신

iiav@donga.com

경제

17

2018년 7월 31일 화요일

*스로*초동아

금융 단신

신한카드 'ARS 결제 서비스' 오픈

신한카드는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온라인 결제가 가능한 '신한 ARS 결제 서 비스'를 내놓았다. 온라인 결제창에 카드 번호와 CVC(카드 뒷면 서명란에 있는 3자 리 숫자 코드)를 입력하면 등록된 휴대폰 번호로 ARS 전화가 걸려오고, 카드 비밀 번호를 누르면 결제가 완료된다. 별도의 앱 설치나 가입절차가 없고 보안프로그램 이나 공인인증서도 필요없어 스마트폰 앱 결제를 이용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유용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정욱 기자



롯데카드, 통합 모바일앱 '라이프' 출시

롯데카드가 통합 모바일 앱 '롯데카드 라 이프'(사진)를 출시했다. 200여 개 선호 지 수로 고객을 구분해 위치, 상황, 경험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개인화 서비스를 제 공한다. 대표적으로 맞춤형 혜택을 추천하 는 터치 서비스, 금융서비스 신청부터 결 제계좌 잔액조회까지 가능한 원스톱 금융 서비스, 기간별 카드 지출 내역을 통해 소 비패턴을 확인할 수 있는 나만의 캘린더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정정욱 기자

시중은행, 여름휴가철 이동점포 본격화

신한銀, 망상해수욕장서 뱅버드 운영 농협 'NH Wings' 지역축제 찾을 예정

본격 여름휴가철을 맞아 시중은행들이 이 동점포를 통해 직접 고객을 찾아 나선다. 이동점포는 자체 발전설비 및 위성 송·

수신 장비 등의 첨단 장비를 갖춘 차량형 점포로. 전국 주요 해수욕장과 축제 현장 에서 간단한 금융업무를 지원한다. 신한은 행은 8월6일까지 강원도 동해시 망상해수 욕장에서 이동점포 '뱅버드'를 운영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동전교환, 귀중품 보 다.

관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우리은행도 8월5일까지 망상해수욕장에 이동점포인 '해변은행'을 운영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며 현금입출금과 이 체 등을 이용할 수 있다.

NH농협은행은 이동점포 'NH Wings' 를 하반기 축제현장에서 운영한다. 홍천찰 옥수수축제, 영동포도축제, 제주 감귤박람 회 등 전국 60여 지역축제를 찾을 예정이



신한은행 뱅버드.

사진제공 | 신한은행

업소용 전기솥밥기계 ^{씨에}H-디지털이궁이

24개월 무이자 할부 시스템으로 전국 방방곡곡에서 주문 쇄도

●●● 인덕션 밥 조리기 업계 최초 압력식 초벌 기능 탑재

인덕션 밥 조리기 전문업체 (주)가족애 에프에스가 세련된 디자인과 소비자 중심의 설계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2018 스마트 디지털 아궁이"를 출시했다.

"디지털 아궁이" 하면 식당 운영하시는 분 들이 먼저 알아봐 주시는 기계로 밥맛부터 품질. AS까지 뭐하나 빠짐없는 기계로 정평이 나있다.

기존 가스 돌솥밥 기계보다 공간 차지가 덜하고 유해가스와 열기가 없어 주방, 홀을 비롯한 어디서든 전기가 있는 곳이라면 설치가 손쉽게 가능하다.

밥맛은 시골 가마솥에서 갓 지은 듯한 구수한 가마솥 밥맛을 내기 위해 압력 방식을 선택 했으며 자동 온도 센서로 버튼만 누르면 1~4인분까지 자동으로 설정되어 완성된다. 또한 완성된 밥은 20분간 밥맛의 변질 없이 자동으로 보온이 되어 단체손님, 예약손님 등에 맞게 나갈 수 있다.



●●● 2018 스마트 디지털 아궁이의 특징

이번 신제품 스마트 디지털 아궁이는 초벌 기능을 탑재했다. 주식회사 가족애에프에스는 창립 후 10년 동안 밥 연구에 매진한 결과 초벌 기능이라는 새로운 기능을 연구 개발 했다. 초벌 기능은 솥에 여유만 있으면 적은 구수에서도 많은 양의 밥을 해내는 기능이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많은 구수의 기계를 사자니 부담스러운 분들에게 좋은 소식 이며, 12구의 기계에서 점심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200그릇 정도 된다.

2018 스마트 디지털 아궁이의 초벌 기능은 손님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시간인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전에 초벌 기능으로 밥을 해놓고 손님이 방문했을 때 3분만 데우기 기능을 활용하면 처음에 한 밥과 같은 밥을 내놓을 수 있다.

11시에 한 밥을 물 한 방울 넣지 않고 1시에 데워도 처음한 밥맛이 그대로 살아나는 게 특징이다. 이렇게 하면 인건비, 시간, 노동력

모두를 절약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업체 측 설명.



디지털 아궁이를 구매한 대천휴게소 상하 행선 관계자는 "이전에는 많은 구수의 제품 구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었지만 지금은 적은 구수로도 손님이 한꺼번에 많이 와도 바로 처음 한 밥맛으로 나갈 수 있어 많은 양의 밥을 하기에 좋은 시스템"이 라고 말했다.

●●● 스마트 디지털 아궁이 간편구입 방법

제품모델은 8구, 10구, 12구, 15구, 16구, 20구, 25구 등 7가지 모델로 구비돼 있으며 업소에 맞게 구매하시면 되고 구매전 전화로 시연 예약을 하면 전문 매니저가 방문해서 밥맛, 기계의 사용법, 시스템 이해, 구매 조건을 들어본 후 설치예약을 하면 된다. 시연 시 대폭 할인이 있으며 설치 후 홍보를 위한 배너, 현수막, 온라인 홍보도 지원하고

또한, 여름철 한해 18개월 무이자 할부, 36개월 저리 할부 등도 있으며 빌려 쓰는 렌탈시스템도 있다.



스마트 디지털 아궁이 문의 1544 - 78